

일개대학 간호학과 졸업 후 5년 이내 간호사의 교육목표 달성도와 영향요인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한미현*, 정승은, 김지윤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Evaluation of Nursing Educational Objectives Achievement & Related Factors in Nurses Within Five Years After Graduation: Focus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Mi-Hyun Han*, Seung-Eun Jeong, Jee-Yoon Kim

Department of Nursing,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졸업생의 교육목표 달성도,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교육목표 달성도와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와 교육목표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를 졸업 한 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 졸업생 82명과 그 졸업생을 지도하는 간호관리자 68명이었다. 자료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과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졸업생의 교육목표 달성도는 평균 3.60 ± 0.60 점/6점, 비판적 사고 성향은 평균 3.46 ± 0.28 점/5점,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4.17 ± 0.56 점/6점이었다. 교육목표 달성도는 비판적 사고 성향($r=0.52, p<.001$), 임상수행능력($r=0.52,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육목표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 성향($\beta=.30, p=.018$)과 임상수행능력($\beta=.26, p=.029$)이었고,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34.25%이었다($F=6.65, p<.001$). 간호단위 관리자가 평가한 졸업생들의 교육목표 달성도와 임상수행능력이 졸업생들이 자가 평가한 것보다 높았다($p<.001$).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교육목표 재설정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될 것이며, 교육목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nursing educational objectives achievemen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and their relationships in nurses within five years after graduation. Subjects were 82 nurses who graduated one nursing college within five years and 68 managers in nursing unit of hospital. Questions were given to nurses. They reported their achievement of educational objectives of the nursing colle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Nursing unit managers received the same questions to evaluate nurses working at their unit.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to march 2014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3.0 program. Mean scores for achievement of educational objectiv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were 3.60 ± 0.60 , 3.46 ± 0.28 , and 4.17 ± 0.56 , respectively. Educational objectives achievement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 = 0.52, p < .001$) and clinical competence ($r = 0.52, p < .001$).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eta = .30, p = .018$) and clinical competence ($\beta = .26, p = .029$) were significant factors for predicting educational objectives achievement. Manager's evaluation score for educational objectives achievement and clinical competence was higher than graduated nurses' report ($p < .001$). This could be used as a feed-back to reset educational objectives and upgrade the curriculum. These study results could be used to, establish strategies to improve educational objectives achievement.

Keywords : Nurses, Objectives, Achievemen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Corresponding Author : Mi-Hyun Han(Hyejeon Univ.)

Tel: +82-2-630-5290 email: hmihyun@hj.ac.kr

Received November 8, 2018

Revised November 27,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학교육은 사회 환경, 학생 그리고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간호교육에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역량강화와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1].

간호교육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다[2]. 또한 졸업생들이 활동할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성과를 증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간호교육의 성과는 비판적 사고력과 임상실무능력이 핵심이 된다[2]. 변화하는 의료환경 및 의료문화와 다양한 질병에 대한 반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능력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Miller[3]는 전문직 간호교육의 우수함을 나타내는 성과의 하나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과 티칭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Brunt[4]는 비판적 사고 기술은 간호사가 복합적인 간호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사고하며 대상자 간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능력이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간호업무수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 요소인 비판적 사고와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5].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를 향한 일련의 성향과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능력들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난다.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인지적 기술을 중요시 여기고 이를 사용하려는 성향(disposition)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5]. 비판적 사고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려면 비판적 사고를 중요시 여기는 성향(disposition)과 기술(skill)이 상호작용하여야 한다[5].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필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비판적 사고 성향은 실제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비판적 사고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려면 비판적 사고의 인지적 측면의 기술과 비판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

의적 성향이 상호작용하여야 한다[6]. 이 비판적 사고 성향 강화는 의사결정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임상수행능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7]. 간호사는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는 전문성 높은 임상수행능력을 필요로 한다[8]. 임상수행능력은 임상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 [9], 이론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통하여 획득되는 기술로서 의사결정 및 비판적 사고가 그 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5].

간호교육인증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간호교육목표에 학생이 졸업 후 갖추어야 할 능력과 수준을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하고 있으며[10] 졸업생들이 활동할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교육평가는 교육목표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 반성, 검토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설정된 교육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는 학생의 학습과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해준다[11]. Hyun 등 [12] 은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졸업 후 2~3년 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실무능력 평가는 간호교육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대학이 설정한 간호교육목표의 달성도를 확인하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 간호단위의 관리자에 의한 평가를 병행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졸업생들의 교육목표 달성도와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와 교육목표달성도에 관계가 있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졸업생의 교육목표 달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의 수준을 파악한다.
- 둘째, 교육목표 달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 셋째, 교육목표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넷째, 교육목표 달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졸업생의 자가 평가와 간호관리자 평가를 비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졸업 후 5년 이내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목표 달성 정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 및 교육목표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 소재 일개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병원에 재직하는 간호사와 해당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간호부서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많은 졸업생이 재직하고 있는 병원 중 조사에 대한 동의를 한 의료기관은 충남과 경기 지역에 속한 7개 병원이었으며, 이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졸업 후 5년 이내의 간호사 82명과 졸업생들이 근무하고 있는 간호단위의 관리자 6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교육목표 달성도

본 연구에서 교육목표 달성도는 충남지역 H 대학 간호학과 교육목표에 대하여 졸업생들이 자가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대상자가 졸업한 대학 간호학과는 2008년 1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간호전문직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11개의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육목표는 I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인간호를 수행한다.’, II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전문간호지식과 간호술을 습득하여 이를 통합적용한다.’, III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분야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한다.’ IV ‘문제해결을 위해 다학제적 접근과 협력을 한다.’, V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 VI ‘간호실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 및 연구수행능력을 향상한다.’, VII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법적, 윤리적 책임의식과 전문직관을 갖는다.’, VIII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에 적극 참여한다.’, IX ‘간호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발휘한다.’, X ‘변화하는 글로벌 보건의료 정책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다.’, XI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여 건강한 환경을 조성한다.’이다.

각 교육목표 달성도는 각 교육목표 진술 문장 그대로 질문하였으며 1점 ‘매우 잘 못한다’부터 6점 ‘매우 잘 한다’까지 6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교육목표 달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관리자는 졸업생과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육목표 달성도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졸업생 평가에서 Cronbach’s alpha =.88, 간호관리자 평가에서는 Cronbach’s alpha =.94이다.

2.3.2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 성향은 비판적 사고를 주요하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동기 또는 바람, 태도이다 [12]. 본 연구에서는 Yoon[13]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를 도구 개발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7개의 하위요인, 즉 지적 열성/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체계성 3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였을 때 도구의 Cronbach’s alpha =.84였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83이다.

2.3.3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로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9], Lee et al[14]이 개발하고 Choi[15]가 수정한 임상수행능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각 문항은 이 도구는 총 46문항이며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상수행능력의 하위 영역은 간호과정(11문항), 간호기술(11문항), 교육 및 협력관계(9문항),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6문항), 전문직 발전(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졸업생은 자신의 임상수행능력을 자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졸업생이 속해 있는 간호단위의 관리자에게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졸업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95였고, 본 연구에서 졸업생 자가 평가의 Cronbach’s alpha =.96,

간호관리자 평가에서는 Cronbach's alpha =.94이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대학 간호학과 졸업생이 많이 취업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자료 수집을 허락한 기관은 4개의 대학병원과 3개의 종합병원이었으며 기관에 재직하는 간호사 중 본 대학 졸업생으로, 졸업 후 5년 이내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시에 해당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간호단위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졸업생에 대한 교육목표 달성도와 임상수행능력 평가를 의뢰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목적과 내용, 진행과정 상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됨을 고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간호사 82부, 관리자 68부로 총 150부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교육목표 달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졸업 후 경과기간과 재직기관 유형에 따른 교육목표달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차이는 t-test와 ANOVA(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교육목표 달성도와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교육목표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육목표달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졸업생과 간호관리자 간의 평가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t-test를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졸업생의 평균연령은 24.7세였고 23세 이하가 31명(37.8%), 24~25세가 33명(40.2%), 26세 이상이 18명(22%)이었다,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고, 졸업 후 경과기

간은 1년 이내가 24명(29.3%), 2~3년이 27명(32.9%), 4~5년이 31명(37.8%)이었다.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3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졸업자가 54명(65.9%), 종합병원(2차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졸업자가 28명(34.12%)이었다. 대상자 중 93.9%인 77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8명(70.7%)이었고, 간호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 이상인 대상자가 70명(85.4%), 대인관계 만족도가 보통 수준 이상인 대상자가 75명(91.5%)이었다

간호관리자의 관리자 경력은 평균 14.4년(표준편차 ±8.78)이었고, 대학병원 재직자가 46명(67.6%), 종합병원 재직자가 22명(32.4%)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50)

Characteristics	Category	n(%)	Mean ±SD	
Age(year)	≤23	31(37.8)	24.7 ±3.05	
	24~25	33(40.2)		
	≥26	18(22.0)		
Post graduate period(year)	1yr	24(29.3)		
	2~3years	27(32.9)		
	4~5years	31(37.8)		
Institute type	University hospital	54(65.9)		
	General hospital	28(34.1)		
Graduate (N=82)	Religion	Yes 77(93.9) No. 4(4.9)		
	Physical condition	Good 58(70.7) Fair 22(26.8) Poor 0(0.0)		
Satisfa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nursing	High	14(17.1)		
	Moderate	56(68.3)		
	Low	11(13.4)		
Interpersonal satisfaction	High	26(31.7)		
	Moderate	49(59.8)		
	Low	5(6.1)		
Manager (N=68)	Manager career	less than 10years 25(36.8) 10~20 years 22(32.3) more than 20years 21(30.9)	14.35 ±8.73	
	Institute type	University hospital		46(67.6)
		General hospital		22(32.4)

Table 2. Differences of educational objectives achievemen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N=82)

Variables	Category	Total (N=82)	Post graduate period(year)			F	p	Institution type		t	p
			1년 (n=24)	2 - 3년 (n=27)	4-5년 (n=31)			University hospital (n=54)	General hospital (n=28)		
Educational objectives achievement	Total	3.60±0.60	3.40±0.65	3.67±0.46	3.69±0.64	2.01	.141	3.71±0.60	3.39±0.55	2.35	.004
	I Perform holistic nursing	3.84±0.81	3.54±0.78	3.85±0.77	4.06±0.81	2.97	.057	4.06±0.81	3.43±0.63	3.56	.001
	II Provide scientific and EBN	3.84±0.81	3.58±0.78	3.93±0.61	3.97±0.95	1.78	.175	3.96±0.85	3.61±0.69	1.92	.058
	III Communicate & cooperation	3.84±0.95	3.46±0.78 ^a	3.78±0.93	4.19±0.98 ^b	4.51	.014(a<b)	3.94±1.02	3.64±0.78	1.37	.302
	IV Encourage multidisciplinary work	3.74±0.86	3.42±0.72 ^a	3.70±0.82	4.03±0.91 ^b	3.77	.027(a<b)	3.81±0.89	3.61±0.79	1.04	.109
	V Cultivate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3.45±0.76	3.33±0.82	3.46±0.58	3.53±0.86	.46	.634	3.50±0.73	3.36±0.83	.80	.427
	VI Improve nursing research	3.49±0.91	3.42±0.97	3.56±0.89	3.48±0.89	.15	.864	3.56±0.95	3.36±0.83	.94	.350
	VII Have ethical & legal responsibility	3.94±0.92	3.63±0.82	4.07±0.87	4.06±1.00	2.02	.139	4.06±0.98	3.71±0.76	1.61	.112
	VIII Participate in community services	3.26±1.17	3.04±1.08	3.52±1.05	3.19±1.33	1.12	.331	3.43±1.24	2.93±0.98	1.85	.069
	IX Demonstrate leadership	3.32±0.88	3.33±0.96	3.33±0.68	3.29±1.01	.02	.978	3.33±0.91	3.29±0.85	.23	.819
	X Prepare for global policy	3.30±0.90	3.25±0.94	3.46±0.65	3.19±1.05	.67	.517	3.37±0.92	3.15±0.86	1.05	.298
XI Build healthier environment	3.57±0.83	3.38±0.82	3.70±0.72	3.61±0.92	1.05	.355	3.76±0.85	3.21±0.69	2.94	.00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otal	3.46±0.28	3.44±0.34	3.48±0.23	3.46±0.27	.15	.860	3.50±0.26	3.38±0.31	1.97	.052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59±0.38	3.46±0.42	3.69±0.31	3.60±0.40	2.38	.099	3.62±0.37	3.51±0.41	1.23	.222
	Prudence	3.20±0.43	3.32±0.45	3.14±0.41	3.17±0.44	1.31	.275	3.22±0.46	3.17±0.37	.52	.606
	Self-confidence	3.23±0.49	3.27±0.50	3.28±0.47	3.15±0.51	.58	.562	3.25±0.47	3.18±0.53	.66	.511
	Systematicity	3.14±0.53	3.24±0.52	3.15±0.45	3.05±0.60	.81	.450	3.19±0.51	3.04±0.55	1.27	.208
	Intellectual integrity	3.75±0.38	3.67±0.40	3.75±0.39	3.82±0.37	1.04	.357	3.82±0.39	3.61±0.33	2.47	.016
	Healthy skepticism	3.49±0.48	3.57±0.46	3.41±0.43	3.49±0.52	.77	.469	3.50±0.45	3.46±0.53	.44	.660
	Objectivity	3.71±0.45	3.58±0.51	3.74±0.40	3.78±0.44	1.44	.243	3.81±0.41	3.52±0.48	2.81	.006
Clinical competence	Total	4.17±0.56	3.90±0.50 ^a	4.24±0.57	4.33±0.54 ^b	4.64	.012(a<b)	4.31±0.56	3.92±0.47	3.13	.002
	Nursing process	4.09±0.64	3.86±0.54	4.19±0.66	4.19±0.68	2.19	.119	4.23±0.63	3.82±0.59	2.88	.005
	Nursing skill	4.57±0.71	4.22±0.64 ^a	4.58±0.76	4.84±0.60 ^b	6.07	.004(a<b)	4.71±0.69	4.31±0.68	2.52	.014
	Education/cooperation	4.05±0.67	3.81±0.53	4.17±0.61	4.13±0.78	2.24	.114	4.17±0.72	3.81±0.48	2.39	.019
	Interpersonal relationship/communication	4.13±0.71	3.85±0.69 ^a	4.17±0.77	4.32±0.61 ^b	3.27	.043(a<b)	4.29±0.68	3.83±0.68	2.89	.005
	Professional development	3.93±0.60	3.66±0.63 ^a	4.00±0.48	4.07±0.61 ^b	3.70	.029(a<b)	4.04±0.63	3.72±0.48	2.40	.019

3.2 대상자의 간호교육목표 달성도

졸업생들 자신이 평가한 11개의 교육목표 달성도 점수는 6점 만점에 평균 3.60±0.60점이었다. 가장 높은 달성도를 보인 교육목표는 VII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법적, 윤리적 책임의식과 전문직관을 갖는다(3.94±0.92)’ 이었고, 가장 낮은 달성도를 보인 교육목표는 VIII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에 적극 참여한다(3.26±1.17)’이었다. 각 교육목표들은 달성도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목표 III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분야 간 의사소통과 협력을 한다.’(F=4.51, p=.014)와 교육목표 IV ‘문제해결을 위해 다학제적 접근과 협력을 한다.’(F=3.77, p=.027)는 졸업 후 3~5년 된 간호사가 졸업 후 1년 이내의 간호사보다 목표 달성도 점수가 높았고, 대학병원 재직자의 점수가 종합병원 재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35, p=.004)(Table 2).

3.3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 성향의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46±0.28점이었다. 하위영역 중 ‘지적 공정성’ 점수(3.75±0.38)가 가장 높았으며 ‘체계성’ 점수(3.14±0.53)가 가장 낮았다.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재직기관 유형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영역 중 ‘지적 공정성’(t=2.47, p=.016)과 ‘객관성’(t=2.81, p=.006)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졸업생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졸업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Table 2).

3.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졸업생 자신이 평가한 임상수행능력의 평균점수는 6점 만점에 4.17±0.56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간호기술’(4.57±0.71)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 발전’(3.93±0.60)이 가장 낮았다.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64, p=.012). 하위 영역 중 간호기술(F=6.07, p=.004)과 대인관계와 의사소통(F=3.27, p=.043), 전문직 발전(F=3.70, p=.029)에서 졸업 후 3~5년 된 간호사의 점수가 졸업 후 1년 이내의 간호사보다 높았다. 재직 기관 유형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에서도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졸업생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졸업생보다 전체 점수(t=3.13, p=.002)와, 5개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able 2).

3.5 대상자의 간호교육목표 달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간호교육목표 달성도는 비판적 사고 성향(r=0.522, p<.001), 임상수행능력(r=0.52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수행능력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510, p<.001)(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82)

Variables	Correlation(p-value)		
	Educational objectives achievement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p)	Clinical competence r(p)
Educational objectives achievement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p)	.522(.000)		
Clinical competence r(p)	.522(.000)	.510(.000)	

3.6 대상자의 교육목표 달성도 관련 요인

교육목표 달성도에 영향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목표 달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졸업 후 경과기간, 재직기관 유형, 건강상태, 대인관계 만족도, 간호업무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점수, 임상수행능력 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회귀분석의 공차한계 값이 0.494~0.795 범위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258~2.025의 범위로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rubin Waston test를 실시한 값을 구한 결과 2.040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한 결과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이 교육목표 달성도에 관련이 있었고, 졸업 후 경과기간, 재직기관, 건강상태, 대인관계 만족도, 간호업무 만족도는 제외되었다.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6.652, p<.001),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R²)는 .342로 전체 설명력이 34.2%이었다. 교육목표 달성도에 관련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 성향(β=.304, t=2.414

$p=.018$), 임상수행능력($\beta=.263$, $t=2.226$, $p=.029$)이었다 (Table 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to educational objectives achievement. (N=82)

Predictors	B	SE	β	t(p)	R ²	adj R ²	F	p
(Constant)	.288	.789		.365 (.716)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18	.132	.304	2.414 (.018)	.403	.342	6.652	0.000
Clinical competence	.585	.263	.263	2.226 (.029)				

3.7 교육목표 달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졸업생 자가 평가와 관리자 평가 비교

졸업생의 교육목표 달성도는 11개의 교육목표 모두에서 관리자들이 평가한 점수가 졸업생들이 자가 평가한 점수보다 높았다($p<.001$). 교육목표 VII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법적, 윤리적 책임의식과 전문직관을 갖는다.’는 졸업생과 관리자 평가에서 동일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교육목표였다. 반면, 졸업생 평가에서는 교육목표 VIII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에 적극 참여한다.’가, 관리자 평가에서는 교육목표 X ‘변화하는 글로벌 보건의료정책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도 관리자들이 평가한 점수(4.52±0.67)가 졸업생들이 자가 평가한 점수(4.17±0.56)보다 높았다($p<.001$). 하위영역 중 ‘간호기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 발전’이 가장 낮았는데, 졸업생 평가와 간호단위 관리자 평가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Table 5).

4. 고찰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병원에 입사한지 5년 이내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대학의 간호교육목표 달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을 알아보고, 이들의 상관관계와 졸업생의 교육목표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졸업생들이 스스로 평가한 것과 간호단위의 관리자들이 평가한 것을 비교하였다.

교육목표 달성도는 6점 만점에 3.60±0.60점으로 중간 정도의 달성도를 나타냈다. 가장 높은 달성도를 보인 교육목표는 VII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법적, 윤리적 책임의식과 전문직관을 갖는다.’이었고, 가장 낮은 달성도를 보인 교육목표는 VIII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에 적극 참여한다.’로 나타났다. 본 대학의 설립이념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인재를 양성한다.’이며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봉사정신 및 활동을 강조하였으나, 졸업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신규간호사로 업무에 적응하고

Table 5. Comparison of clinical competence scored by graduates and managers (N=150)

Variables	Category	Graduates (n=82)	Manager (n=68)	t	p
Educational objectives achievement	Total	3.60±0.60	4.20±0.69	-5.55	0.000
	I Perform holistic nursing	3.84±0.81	4.49±0.78	-5.38	0.000
	II Provide scientific and EBN	3.84±0.81	4.22±0.74	-3.41	0.001
	III Communicate & cooperation	3.84±0.95	4.44±0.82	-5.18	0.000
	IV Encourage multidisciplinary work	3.74±0.86	4.19±0.92	-3.90	0.000
	V Cultivate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3.45±0.76	4.09±0.84	-4.71	0.000
	VI Improve nursing research	3.49±0.91	4.01±0.72	-3.36	0.001
	VII Have ethical & legal responsibility	3.94±0.92	4.54±0.94	-4.04	0.000
	VIII Participate in community services	3.26±1.17	4.09±1.10	-3.92	0.000
	IX Demonstrate leadership	3.32±0.88	3.99±0.92	-4.01	0.000
	X Prepare for global policy	3.30±0.90	3.85±0.85	-3.19	0.002
XI Build healthier environment	3.57±0.83	4.32±0.89	-5.01	0.000	
Clinical competence	Total	4.17±0.56	4.52±0.67	-4.07	0.000
	Nursing process	4.09±0.64	4.47±0.72	-0.47	0.640
	Nursing skill	4.57±0.71	4.91±0.70	-7.44	0.000
	Education/cooperation	4.05±0.67	4.37±0.74	-2.56	0.012
	Interpersonal relationship/communication	4.13±0.71	4.38±0.76	-4.26	0.000
Professional development	3.93±0.60	4.36±0.75	-2.34	0.021	

몰입하는 동안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1개의 교육목표들 간에 달성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대학이 설정한 교육목표들의 성취수준과 달성해야 할 시기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른 교육목표 달성도 차이를 보면 교육목표 III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분야 간 의사소통과 협력을 한다.’와 교육목표 IV ‘문제해결을 위해 다 학제적 접근과 협력을 한다.’는 졸업한 지 3~5년 된 간호사가 졸업한지 1년 이내의 신규 간호사보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졸업생들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졸업생보다 목표 달성도가 높았다.

각각의 교육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간접방법으로 목표 진술을 그대로 설문문항으로 만들고,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그대로 수용하여 졸업생의 교육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목표 달성도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간호교육목표에서 이루고자하는 핵심 능력인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을 같이 조사하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 점수는 5점 만점에 3.46 ± 0.28 점(1년 미만 3.44점, 2~3년 3.48점, 3~5년 3.46점)이었다. 동일한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7, 17],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and Kwon[18]의 연구에서 임상경력 5년 미만인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영역 중 ‘지적 공정성’과 ‘객관성’ 점수는 높았으나, ‘체계성’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17] 연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17, 18]에서도 ‘체계성’이 다른 하위영역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Choi and Cho[19]는 ‘체계성’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성향이므로 간호교육에서 체계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체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재직 기관 유형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부 영역 중 ‘지적 공정성’과 ‘객관성’은 대학병원에 재직하는 졸업생의 점수가 대학병원이 아닌 기관의 졸업생보다 높았다. Park and Kim[8] 연구에서도 병원 규모와 병원 유형에 따라 비판적 사고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으

나, 대상자의 근무경력과 측정도구가 달라 직접 비교하여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다.

임상수행능력 점수는 6점 만점에 평균 4.17 ± 0.56 로 보통 수준이었다. 간호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고[5, 17, 20],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Tae and Hwang[21] 연구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영역에서는 ‘간호기술’이 가장 높았고, ‘전문직 발전’은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1]에서는 ‘간호기술’과 ‘간호과정’이 높게 나왔고,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5, 20, 22]에서는 ‘전문직 발전’이 높게 나와 간호사와 간호학생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에서 교육 받을 때에는 ‘전문직 발전’ 영역이 강조되지만, 졸업 후 간호현장에서는 신규간호사 업무특성상 ‘간호기술’ 수행이 더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졸업한지 3~5년 된 졸업생이 졸업한지 1년 이내의 졸업생보다 높았다. 하위 영역 중 간호기술,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전문직 발전에서 차이가 있었다. 재직기관 유형에 따라서도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보였다. 간호과정, 간호기술, 교육협력, 전문직 발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졸업생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졸업생보다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높았다. Park and Kim[8] 연구에서도 근무하는 병원의 규모(1000병상 이하/미만)에 따라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학병원 또는 규모가 큰 병원에 근무하는 졸업생이 비판적 사고 성향이나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것은 학업성적이나 역량이 우수한 졸업생들이 대학병원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고, 또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교육의 영향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목표 달성도는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수행능력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선행연구들[8, 17, 19, 22-25]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교육목표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이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4.2%($F=6.65, p<.001$)이었다.

본 연구는 5년 동안 배출한 졸업생 수에 비해 표본이 작다는 한계가 있다. 졸업생 근무지의 지리적 분포가 광범위하였고, 의료기관의 동의와 협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경력이 많지 않은 간호사들이라보니 근무 시간이 매우 불규칙하여 설문지 회수율이 저조하였다.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목표 달성도를 확인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도를 졸업생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졸업생이 근무하는 부서의 관리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육목표 달성도와 임상수행능력 모두 졸업생들의 자가 평가보다 관리자의 평가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지금까지 병원의 간호단위 관리자로 하여금 졸업생의 교육목표 달성도와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상호 비교한 연구가 없어 이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고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측면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와 개선의 선순환체계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 대학의 간호학과에서 자발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이다.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본 학과의 교육목표들의 내용, 성취 수준, 달성 시기 등에 대해 학과 구성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 졸업생 중 일부와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관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목표 달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수준과 이들 간의 상관관계 및 교육목표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동시에 졸업생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관리자 평가를 병행하여 졸업생들의 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충남, 경기 지역에 위치한 7개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졸업한지 5년 이내의 간호사 82명과 간호단위 관리자 68명이었다. 연구결과 졸업생의 교육목표 달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은 중간정도의 수준이었으며, 교육목표 달성도는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과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교육목표 달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졸업생들의 교육목표 달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대하여 간호단위 관리자들이 졸업생들 자신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간호는 대학교육의 결과가 실무에 직결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간호교육목표의 달성도는 졸업 후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더욱 완속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의 근무경력이 더해감에 따라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설계와 적용을 해야 한다.

최근 간호교육은 학습 성과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 후 간호현장에서 교육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교육목표 측정 도구 개발과 함께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목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H. Bae, J. S. Park, "The Recognition of Achievement and Importance of Nursing Program Outcom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 203-214, 2013. DOI :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203>
- [2] C. J. Kim, Y. H. Ahn, M. W. Kim, Y. O. Jeong, J. H. Lee, "Development of Standard and Criteria for Accreditation of a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Program: Reflection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Nursing Prof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vol. 36, no. 6, pp. 1002-1011, 2006.
- [3] M. A. Miller, "Outcome evaluation: measuring critical think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17, no. 12, pp. 1401-1407, 1992.
- [4] B. A. Brunt,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An Integrated Review",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vol. 36, no. 2, pp. 60-67, 2005. DOI : <https://doi.org/10.3928/0022-0124-20050301-05>
- [5] K. J. Ko,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Korea, 2003.
- [6] R. Ennis, "Critical thinking: A Streamlined Conception", *Teaching Philosophy*, vol. 14, no. 1, pp. 5-24, 1991. DOI : <http://10.5840/teachphil19911412>

- [7] M. S. Kwo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387-394, 2011.
- [8] J. A. Park, B. J.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 39, no. 6, pp. 840-850, 2009.
- [9] C. Barrett,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27, no. 2, pp. 364-371, 1998.
DOI : <http://10.1046/j.1365-2648.1998.00511.x>
- [10] J. H. Park, Study of Abilities Required to Develop for Student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1, pp. 74-87, 2011.
- [11] B. G. Kang, S. H. Park, M. R. Choi, "Curriculum & Educational Evaluation", p.143-144, Taeyeonbook, Seoul, 2006.
- [12] M. S. Hyun, M. S. Yoo, M. S. Song, J. Park, Development of the Nursing Practice Capacity Scale for Evaluating Achievement of Nursing Education Objectives,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vol. 22, no.2, pp246-255, 2015.
- [13]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Korea, 2004.
- [14] W. H. Lee, C. J. Kim, J. S. Yoo, H. K. Hur, K. S. Kim, S. M. Lim,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Yeonse Nursing*, vol. 13, pp. 17-29, 1990.
- [15] H. Y.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Competency and Stress Factors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orea, 1992.
- [16] K. W. Lee, Y. S. SHin, "A Study on the Program Operations based on the Evaluation of Program Education Objectives and Program Outcom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12, no.2, pp. 71-82, 2009.
- [17] H. S. Cho,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 2, pp. 222-231. 2005.
- [18] S. M. Park, I. G. Kwon, "Factors Influencing Nurses' Clinical Decision Making: Focus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 37, no. 6, pp. 863-871, 2007.
- [19] H. R. Choi, D. S. Cho, "Influence of Nurses' Performance with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Proces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7, no 3, pp. 265-274, 2011.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3.265>
- [20] H. S. Park, J. Y. Han,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0, no. 4, pp. 438-448, 2013.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3.20.4.438>
- [21] S. H. Tae, E. H. Hwang, "Nurses' Clinical Compete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Perception of and Compliance with Standard Precautions",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ol. 12, no. 1, pp. 40-46, 2012.
- [22] K. J. Kang, E. M. Kim, S. A. Ryu,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for General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1, no. 1, pp. 284-285, 2011.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1.11.284>
- [23] J. D. Lee, C. S. Lee, "The Effects of Preceptorship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2, no. 3, pp. 434-443, 2006.
- [24] K. A. Shin, B. H.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1, pp. 46-56, 2012.
- [25] J. W. Hw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Korea, 1998.

한 미 현(Mi-Hyun Han)

[정회원]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1982년 1월 ~ 1984년 12월 :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내과중환자실 간호사
- 1997년 2월 ~ 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간호관리, 간호윤리

정 승 은(Seong-Eun Jeo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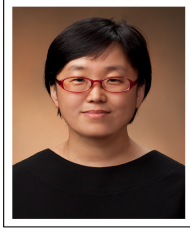
- 1992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86년 5월 ~ 1994년 2월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센터 심장내과 중환자실 간호사
- 1994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혈관 간호, 노인간호, 감염관리

김 지 윤(Jee-Yoon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04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10년 8월 ~ 2012년 2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위원
- 2012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 보건정책, 병원경영